

성(誠)에 대한 이해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3. 소원성취(所願成就)의 성(誠)
II. 신조(信條)와 삼요체(三要諦) 그리고 성(誠)	IV. 성(誠)의 실천
III. 성(誠)의 의미	1. 언행(言行)의 일치(一致)
1. 순일무위(純一無僞)의 성(誠)	2. 사심(邪心)없는 노력
2.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	3. 무한한 정성(精誠)과 자기반성
	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에 있어서宗旨(宗旨)와 신조(信條) 목적(目的)은 하나의 종단이 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신앙 내용이다. 종지는 대순진리의 사상을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요, 신조는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요건 또는 신앙의 방법을 말하며, 목적은 대순진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서 신조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앞서 2회에 걸쳐 그 내용의 일부를 설명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순진리회의 신조는 크게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나누어지며 사강령은 안심(安心)안신(安身)과 경천(敬天)수도(修道)이다. 이것을 필자는 안심(安心)안신(安身)에 대해서 본 논총의 7집에서 설명하고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대해서는 논총 8집에서 설명하였다. 모두가 대순진리회의 신앙을 위해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실천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고에서는 신조의 사강령과 함께 주요항목을 이루는 삼요체(三要諦)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요체(三要諦)란 대순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세가지 요건이라는 말이며 그 내용은 성(誠)과 경(敬) 그리고 신(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먼저 성(誠)에 대해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다음 호에 차례로 경(敬)과 신(信)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본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있어서 성(誠)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성(誠)의 의미를 살펴봄, 이러한 성의 의미는 구체적인 수도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논고를 요약하고 차후 주제와 관련해서 미래적인 조망을 하기로 하겠다.

II. 신조(信條)와 삼요체(三要諦) 그리고 성(誠)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교리개요에 따르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 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여 성(誠)·경(敬)·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안신(安身)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救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이룩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신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성·경·신(誠敬信)의 삼법언이 수도(修道)의 요체가 되고 안심(安心)안신(安身)의 이율령이 수행의 훈전(訓典)이 된다. 이는 다름아닌 사강령과 삼요체의 줄거리를 종지와 그 목적의식에 연관하여 자리매김한 것이다. 수도의 요체란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를 일컫고 있으며 수행의 훈전이란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것임을 말한다.

대순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은 신앙하는 사람의 실천수행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 수도인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생활에 이르게 되면 그 지침과도 같은 훈전(訓典)이 필요하고 또한 요체(要諦)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대순진리의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리로서 먼저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강령(四綱領)에 해당하는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이 선행논문을 통해 밝힌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역시 신조에 속하는 삼요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그 관계를 우선 알아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강령에서 강령(綱領)이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명령과도 같은 가르침이고, 요체(要諦)란 자신이 안으로부터 갖추어나가는 필수적인 자세를 일컫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령은 대지침과도 같고, 요체는 흐트러짐이 없는 자기자세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의 수도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지침도 필요하고 또 자기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세도 필요하다. 마치 표리(表裏)관계와도 같다고 할 것이며, 안과 밖의 가르침이 고루 겸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목적하는 바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강령과 삼요체의 관계를 그 항목에 비추어 말한다면 안심(安心)없는 안신(安身)이 있을 수 없고 안심안신없는 경천(敬天)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경천(敬天)없는 수도(修道)가 있을 수 없다. 항상 전제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것이 곧 사강령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요체(三要諦)라는 것은 사강령에 해당하는 안심·안신·경천·수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성·경·신(誠敬信)이 결여되면 신조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강령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삼요체가 그 몸에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수도인으로서의 신행(信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역(逆)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성·경·신(誠敬信)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안심·안신·경천·수도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신조를 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신조는 사강령과 삼요체가 아울러 지켜져야만이 의미가 있고 또한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말한다. 그리하여 대순진리의 신

조는 강령(綱領)과 요체(要諦)로서 그 표리를 이루어 수도생활의 깊이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삼요체(三要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차례로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誠)과 경(敬) 그리고 신(信)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삼요체는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면서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 하나의 요체(要諦)를 이루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윤리 생활에 바탕을 이루는 것도 곧 성실(誠實)과 경애(敬愛)와 신념(信念)이라고 볼 때 성·경·신(誠敬信)은 수도의 요체로써 수도인이 지녀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복합적인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여기서는 그 처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성(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명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성(誠)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統率) 이용(理用)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룬다.」

여기서는 성(誠)이 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이 마음은 몸 전체를 통솔 이용하는 기관이므로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모든 일의 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다. 즉 바라는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주관하는 마음을 항상 틈과 쉽이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대순지침』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성(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다.
- (나) 천도의 운행이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궤의치 말아야 한다.
- (다)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自誠)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 (라)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하셨으니 성의 소귀(所貴)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

(마)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여기서는 성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행하는 사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오직 상제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봉행 실천해 나가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고 있다. 이로써 수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니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또한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진성(眞誠)이 곧 성의 본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성(誠)의 개요는 이미 마음속에 그 본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곧 진성(眞誠)이 된다. 이 진성(眞誠)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나아가서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된다. 그리하여 그 성(誠)의 마음을 항상 조밀하고 틈이 없게끔하면 만인을 감동시키고 이어서 뜻하는 바의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자신과 모든 만물이 더불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성(誠)의 바탕에는 또한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님에 대한 공경이 항상 뒷받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상으로 성(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신조의 의미 그리고 삼요체(三要諦)와의 관계 나아가서 성(誠)의 교리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필자는 위의 내용에 입각해서 성(誠)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보기로 하며, 이어서 수도생활 속에 성(誠)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가에 대해 각각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Ⅲ. 성(誠)의 의미

1. 순일무위(純一無僞)의 성(誠)

성(誠)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정성 성, 진실로(信) 성, 참으로 성, 공경할(敬) 성, 자세할 성등의 뜻이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일무위(純一無僞)라고 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성(誠)의 뜻에 경(敬)과 신(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성을 들이고 조밀하면서 삼가는 노력을 말하고 이러한 성(誠)은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이다.

성(誠)의 의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은 성(誠)이 인간의 본래 마음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준 본래의 참된 마음이라는 점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참된 것은 하늘의 도(道)요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하여 誠이 본래 하늘의 道임을 말하였다. 이러한 하늘의 道가 사람에게도 부여되었으니 誠은 하늘의 이법이고 진리의 법도이면서 사람 마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율곡(栗谷)은 말하기를 「성(誠)은 하늘의 참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聖學輯要 中 語)라고 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속에 지녀야만 하는 진실된 것이 성(誠)이라는 말이다. 이 때 성실(誠實)과 진실(眞實)은 서로 상통하는 말이다.

성(誠)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으로 순일(純一)무잡(無雜)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진실(眞實)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태도부터 참(誠)되어야 할 것이다. 맹자(孟子)는 「참된 것(誠)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思誠者 人之道也)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사성(思誠)이며 성지(誠之)로서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성실(誠實)한 마음이 넘칠 때 정직과 신의(信義)의 미덕(美德)이 이루어지며 성실한 마음이 부족할 때 거짓과 불의(不義)와 불신(不信)과 부정(不正)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참되다(誠)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치(理)로서 그것은 모두 다 성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니 하늘의 도가 본래 그렇다.」(誠者 理之在我者, 皆實而無僞 天道之本然)라고 하여 내 마음의 성(誠)과 하늘의 도(道)를 일치시키고 있다. 간혹 우리는 성(誠)을 말하면서 마치 특별한 사람만이 이것을 행하고 또한 그 성격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참된 진리에 못 미쳐서 그런 것이며 우주의 참된 진리는 모든 만물과 사람에 두루 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우주세계에는 항상 이 우주를 유지하고 운행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서 조금도 어김이 없이 자연을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간다. 이것을 곧 천리(天理)라고 하고 이러한 천리가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성현들의 말씀이다. 이 때 모든 사물이 그 이법(理法) 즉 천도(天道)를 따라서 움직이

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가 곧 성(誠)이며,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그 속에 우주의 이법(理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법(理法)에 순응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곧 인간의 사명이 된다.

그런데 누구나가 그러한 성(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 또는 사심이 있어서 이것을 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성(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도(修道)가 필요한데 이 때 수도란 욕심과 사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참된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수도(修道)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저버리게 되면 참된 것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그 성(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성(誠)은 본래 스스로 이루어지지만(『中庸』에는 「誠者 自成也」라고 하여 이를 자성(自成)적 성(誠)이라 함) 인간의 성(誠)은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성(誠)을 이루려는 노력은 인간의 도리(道理)이며(誠之者 人之道也) 이 도리(道理)를 지키기 위한 방안(方案)들이 곧 오상(五常; 仁·義·禮·智·信)이나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윤리적 덕목(德目)들이다. 이러한 덕목은 모두 정성스러우며 참되고 거짓이 없는 행동을 말하므로 순일무위(純一無僞)하다고 하는 것이다. 남을 속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기만하거나 자아(自我)에 도취(陶醉)되지 않는 행동은 모두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誠)은 또한 진실(眞實)무망(無妄)하다고 한다.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고 어떤 망령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始終一貫)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도(修道)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도(道)에 향하고 세속(世俗)의 잡사(雜事)에 자기의 뜻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만 수도의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修道)는 거짓없는 진실(眞實)에서부터 싹튼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순일(純一)하게 단속해 나가야 한다. 대순진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합당한 실천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전경』의 다음구절은 이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七월에 상제께서 본택에 돌아와 계시므로 김 형렬은 상제를 배알하고자 그 곳으로 가다가 문득 소퇴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꺼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가다가 본택에서 하운동으로 향하시는 상제를 만나 뵈옵고 기뻐하였도다. 형렬은 반기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아뢰고 「이 길에 들어서 오지 않았더라면 뵈옵지 못하였겠나이다」 고 여쭙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서로 동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만나리라. 네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서 나를 좃고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좃지 아니하는도다.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귀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네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귀라」 고 이르셨도다. 형렬은 말씀을 듣고 종도들의 틈에 끼어서도 남달리 진정으로 끝까지 상제를 좃았도다.(교운 1장 7절)

종도 두 사람이 상제 앞에서 사담하기를 「남기(南基)는 일본말을 배우지 못함을 후회하고 영서(永西)는 배우가 되지 못함을 후회하니라.」 이 때 갑자기 남기는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고 영서는 상복을 입은 채 상건을 흔들며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상복 소매로 복치는 시늉을 해보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느니라.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남기의 말은 일본사람과 틀림 없고 영서의 재주는 배우 중에서도 뛰어나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 하느니라. 그제야 상제께서 타이르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자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느니라」 하셨도다.(교법 2장 29절)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命)을 참관케 하셨도다. (예시 17절)

위의 구절에서 보면 성(誠)은 진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님을 진실로 받드는 마음이 곧 성(誠)이며 이 때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받드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세나 부(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신앙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진실로서 마음의 성(誠)을 다한 것이 된다.

성(誠)은 또한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한번 마음을 정한 바엔 변함이 없어야 됴를 말한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거기에 벗어나는 헛된

일을 생각지 않아야 하며 어떤 망령됨도 없는 순일(純一)한 자세가 요구된다. 「늘 꿇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순일무위의 성(誠)인 것이다.

이처럼 순일무위(純一無僞)한 성(誠)은 하늘의 이법(理法)이며 우리 인간 내심(內心)의 참모습임을 알 수 있다. 항상 진실무망(眞實無妄)한 자세로서 모든 사람을 대해 나가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참된 것(誠)으로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道理)이다. 우리 인간이 회구하고 갈망하는 궁극적인 도덕의 지표도 이러한 성(誠)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2.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

순일무위(純一無僞)한 성(誠)으로써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되면 상대를 감화시키기도 또한 만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성(誠)하면 형태로 나타나고, 형태로 나타나면 더욱 드러나게 되고, 더욱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감화하게 되니,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誠)이어야만 능히 감화시킬 수 있다.」(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고 하여 성(誠)의 위력을 말하고 있다. 성(誠)은 항상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면 변화가 있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게 되니 말하자면 ‘지성(至誠)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지극히 성실하고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는 없으니, 성실하지 못하면 능히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 不誠 未有能動者也)고 하여 지성(至誠)을 강조하였다. 지성(至誠)은 지극한 성(誠)이며 그 참된 성(誠)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이러한 지성(至誠)을 쏟으면 만사가 감동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써 참된 성(誠)을 이룬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誠)의 의미 가운데 또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미유부동(未有不動)으로서의 성(誠)이다.

성(誠)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실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성(誠)이라는 것은 비단 자신에게만 있어 진실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자기 밖의 일에 있어서도 진실 그 자체가 되도록 한다. 이른바 자기를 이루면서 그 밖의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성(誠)의 본질은 안과 밖을 합하는 도리를 내포하고 있다.(『中庸』;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성(誠)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원리로서 기능하며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어 성(誠)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한다.(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그러므로 군자는 참된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 것이다.(是故君子 誠之爲貴) 이러한 성(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람의 도리로서 그 사람이 간직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마음을 곧 실심(實心)이라고 하며 반드시 밖으로 그 효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울곡(栗谷)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實心)이 있기 때문에 공부(工夫)가 밝고 넓어 간단(間斷)이 없으니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實心)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聖學輯要』;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人無實心, 則悖乎天理矣)고 하여 실심(實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심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정성이 우러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誠)이 미유부동(未有不動)으로서 감동시키지 않는게 없다면 수도에 뜻을 둔 자는 항상 쉬이 없고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록 남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수 많은 번뇌에 휩싸이더라도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정성만이 결실을 이룰 수 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난 날의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니 수도인에게 있어서 성(誠)은 참으로 중요한 자세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간뇌를 잘 삭혀 넘겨야 하리라. (교법 1장 3절)

참된 일에 뜻을 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며 이럴 때 자신은 방황하고 좌절하기가 쉽다. 하지만 자신의

굳은 의지로 쉬지않고 노력해 나가면 반드시 그 성과를 얻게 되니 이것은 모두 신명과 사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부단한 노력없이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나가면 어느새 방해되는 일들이 없어지고 참된 결실을 이루게 된다. 참는 것이 없이는 참된 수도(修道)라고 할 수 없으며 인종(忍從)의 결과가 곧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은 이렇게 상대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을 체득한 사람이라면 천하의 모든 제도에 밝게 되고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성(誠)을 지니면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의 커다란 기강을 세울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입어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한 가정의 가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모든 가족이 그 가장을 중심으로 화목하여 집안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학교의 스승이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모든 제자들이 우러러 받들고 나아가 훌륭한 학문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순진리의 수도인(修道人)이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선각자(先覺者)와 후각자(後覺者)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루 속히 천하(天下)포덕(布德)이 될 수 있다. 천하포덕으로 이 세계가 화평해지고 도화낙원이 펼쳐진다면 그것이 곧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 성(誠)이야말로 모든 실천수행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로 『전경』에 소개되어 있는 다음의 일화는 이러한 성(誠)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

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1장 29절)

이선경의 아내는 구천상제님의 공사(公事)중에 49일동안 매일 떡 한시루를 쪄서 정성을 드리게끔 되어있었다. 애초에 상제님의 공사를 받들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수고에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마자 아무리 불을 때어도 떡이 익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제께서는 이를 알아차리고 여인의 성심(誠心)이 풀린 것을 꾸중하시며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끔 하시니 이로써 떡이 제대로 익게 되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 마침내 그 여인의 성심(誠心)은 신명에 사무치게 되어 오색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誠)은 미유부동으로서 감동시키지 않는게 없는데 상제님에 대한 신앙으로 공사(公事)를 받드는 사람이라면 잠시도 쉬지않고 그 마음을 흐트리지 않으므로써 참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참된 성(誠)을 행할 때 그 성(誠)이 신명(神明)에게 사무쳐서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며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고 간단(間斷)이 있으면 신명의 감화(感化)를 받지 못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성(至誠)은 신(神)과 같다고 하였다.(『中庸』; 故 至誠如神) 이상을 볼 때 모든 종교활동은 신명(神明)사업(事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명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없고서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며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마음을 속이는 행위등은 모두 신명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명을 감동시킬 수 없으므로 수도의 참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명을 모시는 마음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도리를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결국 신명을 감동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 이것이 성(誠)의 참된 의미라 할 것이다.

3. 소원성취(所願成就)의 성(誠)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한 성(誠)은 결과적으로 참된 결실을 이루는 전제조건이 된다. 성(誠)은 하늘의 도(道)라고 하였듯이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誠)은 진리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성(誠)은 진리를 실천하는 조건이 되면서도 목적이 달성된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하나의 결과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성(誠)이며 이 때 성(誠)은 과정이면서도 목적이 된다 하겠다.

구천상제님을 신앙하고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받드는 수도인은 그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가 곧 성(誠)이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며 이는 대순진리의 수도인에게 있어 소원이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진실되고 순일(純一)무위(無僞)한 성(誠)의 개념이 들어 있다. 성(誠)은 스스로 밝은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밝혀나가는 것으로 참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본성을 이러한 성(誠)이 가득 채우고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이러한 성(誠)으로 감동시킴으로써 자기를 완성시키고 또 타인을 구하게 되니 이것이 성(誠)의 결과인 것이다.

성(誠)으로써 참된 결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선(善)을 택하여 고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울곡(栗谷)은 말하기를 「군자는 선(善)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며 악(惡)을 미워하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하니, 모두 힘써 제거하고 구하여 얻는 것은 그 뜻을 참되게 하는 일이며 수신(修身)의 시작이 된다. 인사(人事)의 마땅함을 닦아서 선(善)을 택하여 굳게 잡으며 생각하여 얻고 힘써서 도(道)에 맞게끔 하는 것은 성지자(誠之者)의 일이며 인도(人道)의 성(誠)이다. 천리의 본연을 온전하게 하여 힘쓰지 않고도 중(中)을 얻고 생각하지 않고도 얻으며 조용히 중도에 알맞은 것은 성자(誠者)의 일이며 천도(天道)의 성(誠)이다.」 (『四

子言誠疑』)라고 하였다.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참된 것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번 선택했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힘들다고 하여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두 마음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율곡은 또 말하기를 「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만사(萬事)가 모두 거짓이므로 어디 간들 행할 수 있으랴. 한 마음이 진실로 성실하면 만사가 다 참되니 무엇을 이루지 못하랴.」(『聖學輯要』; 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可行, 一心苟實, 萬事皆眞, 何爲而不成) 라고 하여 이른바 실심(實心)과 천도(天道)를 다른 것이 아닌 성(誠)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볼 때 힘써 수도하고 정성에 또 정성을 드러나가서 바라는 바의 결과를 꼭 얻도록 하는 것이 성(誠)의 의미이다. 한 치의 성실이 있으면 곧 한 치의 사물이 있고 한 자의 성실이 있으면 곧 한 자의 사물이 있다(一寸之誠實, 一寸之事物, 一尺之誠實, 一尺之事物)고 하였듯이 자신이 지닌 성실만큼 그 결과가 나옴을 알고 부단한 성(誠)으로 자신의 큰 소원(所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전경』에는 이러한 誠의 의미를 깨우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
(교법 2장 5절)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해 선달 어느날 백지에 이십 사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 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良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十四 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 명숙(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도다.(예시 50절)

윗 글에서 모든 일에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일심 즉 한 마음에 달려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고 또 한 마음을 가져

야만이 도덕군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니 이 때 한 마음이란 참된 성(誠)으로 일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본다. 순일(純一)한 성(誠)을 마음으로 삼고 이것이 발휘되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따라서 참된 결실을 이루게 되니 대순진리에서 소원성취의 성(誠)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誠)을 가리키고 있다.

IV. 성(誠)의 실천

1. 언행(言行)의 일치(一致)

위에서 논한 성(誠)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다음에는 그 참된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하며 참된 성(誠)은 수도생활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실천은 먼저 언행(言行)을 일치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성(誠)이라는 글자는 그 구성으로 볼 때 ‘언(言) + 성(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미상 ‘말한 바를 이룬다’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람이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도록(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성(誠)의 의미이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하여야 하고 행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따라서 “언어(言語)란 반드시 행실(行實)을 돌보아야 하고 행실(行實)은 언어(言語)를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다.

『전경』에 이르기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교법 1장 11절)라고 하였듯이 마음과 말과 행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그 마음에 참된 성(誠)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 말이 진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행동에 있어서도 곧 진정한 봉사와 희생이 우러나올 수 있다. 유학자 율곡은 말하기를 「실심(實心)이 있는 연후에야 실공(實功)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공(實功)이라는 것은 일(事)을 이룸에 있어서 공언(空言)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강한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과 공론(空論)으로 힘이 생길 리가 없다. 따라서 참된 성(誠)이 아니면 모든 것

이 무실(無實)한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성(誠)을 실천한다 함은 반드시 자기가 말한 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꼭 실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수도인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어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성(誠)이 아니다. 상대의 위협에 못이겨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참다운 성(誠)이 될 수 없다.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하며 실없는 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은 대순진리의 수도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자세라고 본다. 다음의 「전경」 구절은 이러한 수도인의 언사(言事)와 관련하여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四월에 들어 심한 가뭄으로 보리가 타니 농민들의 근심이 극심하여지는 도다. 종도들도 굶을 걱정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 하고 이제 다시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 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실없이 말하지 말라」 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두리 고개 김 낙범에게 들려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니라」 고 하시면서 다 잡수셨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큰 비가 내리니 말라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 (행록 4장 15절)

구천상제님을 믿고 수도(修道)를 하는 사람은 특히 이와 같은 성(誠)을 잘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 언사(言事)에 있어서 농담 한마디라도 헛되이 해서 안될 것이며 이로써 천지(天地)도수(度數)에 박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아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때때로 시를 읽어 주시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셨도다. ...

閑談敘話可起風塵 閑談敘話能掃風塵 (한가로이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큰 태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한가로운 대화 한마디가 그 태풍을 잠재울 수도 있다.; 교법 3장 47절)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라고 하였으니 말 한마디라도 잘 가려서 하고 항상 덕(德)을 지닌 말을 하는 것은 수도 생활에 있어 주요한 실천사항이 된다 하겠다. 자신이 말한 바를 꼭 지키기 위해서는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또한 성(誠)이다. 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뎌내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도에서 힘든 고비를 겪으면 쉽게 포기해버림으로써 애초의 말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모든 과정에는 고비가 있어서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뜻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번 다짐하고 서약한 말은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성(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를 견뎌냄으로써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보게 된다.

성(誠)은 이렇게 자신의 말한 바를 행동과 일치시켜나가는 것이 하나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에 욕심이나 사심을 배제할 것이 요구된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헛된 욕심이나 사심을 제거하는 것은 이같은 성(誠)의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항목이 될 수 있다.

2. 사심(邪心)없는 노력

율곡의 말에 의하면 성(誠)이란 것은 「하늘의 실리(實理)이며 마음의 본체(本體)인데 사람이 능히 그 본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사(私邪)가 있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敬)으로써 위주하여 사사(私邪)를 제거하면 본체가 완전할 수 있다」(『聖學輯要』中；誠者，天之實理，心之本體，人不能復其本心者，由有私邪爲之蔽也，以敬爲主，盡去私邪，則本體乃全)고 하였다. 수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도(道)에 향하고 세속의 잡사(雜事)에 자기의 뜻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만 수도(修道)의 기초(基礎)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는 그 마음의 사됨이 없는 참된 성실(誠實)로부터 싹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성실(誠實)한 마음을 지니기 위하여 항상 신독(慎獨) : 홀로 있을 때 삼가함)에 힘썼다. 신독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에 거짓이 없고 도리(道理)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

(修道)는 즉 어두운 방에서도 결코 속이지 않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中庸』;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幕顯乎微 故君子 慎其獨也) 성실(誠實)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남이 알든 모르든 착한 마음으로 신독(慎獨)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을 수 있고 나의 정심(正心)을 보존할 수 있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척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태만한 것은 성(誠)이 아니다. “어두운 방에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속이더라도 신명의 눈은 번개와 같다”(『明心寶鑑』; 暗室欺心 神目如電) 고 하였듯이 항상 신명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 남이 보든 안보든 자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항상 바르게 보존하는 것을 일러 존심(存心)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연의 양심을 지니고 있는데 이 양심을 언제나 잃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존심(存心)에 의하여 참된 성(誠)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독(慎獨)을 하지 않아 존심이 되지 않으면 방심(放心)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방심은 타고난 나의 양심(良心)을 잃는 것 또는 잃은 양심(良心)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존심(存心)의 반대용어라 할 수 있다. 방심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양심을 잃게 되어 악(惡)을 자행하게 된다. 이것은 곧 참된 성(誠)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렇게 참된 성(誠)이 결여되면 모든 수도(修道)는 도리어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자신의 도를 전해야 될 후각(後覺)자에게 참된 수도를 통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태하고 사심(邪心)에 찬 말을 한다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며, 구전상제님을 속이는 행위로서 수도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 (교법 1장 38절)

윗 글에 나타난 「전경」 내용은 모두 사심(邪心)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사심(邪心)으로서 탐을 내는 것은 주로 금전적인 욕심과 온당치 못한 권위 그리고 권력을 위한 투쟁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는데,

이는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자신을 망하게 하고 또한 타인을 저버리게 된다. 진실한 성(誠)을 행하는 순간이라면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개입될 수가 없는 법인데 사심(邪心)이 가득차 있으므로 잘못된 실천을 가져오는 것이다. 모두 자신의 수도가 참되지 못하는데서 이러한 과오가 생겨난다. 참되면 밝고 밝으면 참된 것이다.(『中庸』; 誠則明矣 明則誠矣) 참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中庸』; 不誠 無物) 따라서 성(誠)이야말로 진리를 보는 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誠)과 진(眞)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리란 본래 밝은 것이요 어두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펴는 것은 참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신의 잃은 양심을 회복하고 참된 성(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항상 밝고 사심(邪心)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순진리를 펴는 것을 포덕(布德)이라고 한다. 이는 구천상제님의 큰 덕(德)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므로 참되지 않으면 알려질 수가 없다. 자신의 사사(私邪)로서는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사사(私邪)를 제거한,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서만이 널리 알려질 수가 있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생각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곧 성(誠)이다」(『聖學輯要』; 程子曰 思無邪者誠也)라고 하였다. 자신이 진리를 생각하고 신앙하는 데에 어떤 사심(邪心)도 없을 때 참된 성(誠)이 우러나올 수가 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오직 그 사람이 상제님의 진리를 좇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하며 자신의 명리(名利)를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하고 보살피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참된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경천애인(敬天愛人)사상 즉 “하늘을 외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주의 보편적이고도 장엄한 이법(理法)질서(秩序)를 대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천애인(敬天愛人)은 내 마음 속에 성(誠)을 이루는 것 즉 성(誠)의 정신을 실천하는 윤리도덕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수도인이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조금의 사사(私邪)도 개입되지 않는 처사(處事)가 요구된다 하겠다.

성(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성(精誠)을 들이고 더욱 정성을 드리는 것(誠

之又誠)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것은 참된 정성이 하나의 애살스러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색하고 애바른데가 있으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거북하며 자기의 이익이 개입되기 쉽다. 어떠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악의에 찬 경쟁은 있을 수 없다. 악의로써 하는 경쟁은 나중에 가서는 욕심으로 변하게 되며, 욕심에 의한 경쟁은 투쟁이 되어 남을 해치게 된다. 대순진리로서의 상생(相生)은 곧 남을 잘되게 하고 살리는 이념인데 도리어 남을 해치게 된다면 정반대인 상극(相剋)이 되는 것이니 상제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다. 이를 반복해서 살펴나가지 않으면 잘못된 성(誠)이 되어 자신을 망치고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게 된다. 그래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이며 조금이라도 자기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욕심은 곧 이기심(利己心)을 말한다. 이기심이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한 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惡)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악(惡)으로써 정성을 드린다면 그 정성은 상대를 괴롭히고 원망을 사서 급기야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정성을 들이더라도 항상 선(善)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善)이 바탕이 된 정성은 덕(德)이 되고 이것이 곧 생(生)이 되어 상대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는 상대를 잘되게끔 하고 또한 더불어 자신을 잘 되게 한다. 참된 결실이란 이러한 선(善)의 성과를 말하고 거짓된 것은 길이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다. (교법 2장 55절)

상극적인 투쟁의 과정에서는 악이 곧 죄이고 이러한 죄로써 먹고 살아온 것이 선천이라면 앞으로의 후천세계는 선(善)으로써 먹고 사는 성인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誠)을 실천하는 삶이며 참된 결실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3. 무한한 정성(精誠)과 자기반성

위에서 살펴본 성(誠)의 의미는 진실(眞實)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誠)은 본래 참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밖으로 이룩하는 것이므로 이를 실천한다 함은 조금의 틈도 없이 끝없이 자기 정성을 들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순진리회 요람』에도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라고 하였듯이 틈과 쉽이 있다면 참된 결실로서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성이란 무한한 노력을 담고 있다고 한다. 내 몸이 괴롭고 여건이 힘들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끝없이 봉사해 나갈 때 상대는 비로소 감화를 받게 되고 이같이 여러 사람을 감화시킴으로서 참된 결실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나의 조그만 어려움에 치우치다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는 결국 성(誠)의 도리를 망각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잘 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대인관계에서의 희생적 실천을 담고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참된 성(誠)은 대인관계에서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 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 (예시 87절)

내가 상대를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려면 먼저 어려운 고비를 참고 견뎌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성(人性)을 연마하고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수심연성(修心鍊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심기(心氣)에 대해서는 닦고 씻어내야 하며 성질은 단련하고 연마해야만 한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뛰쳐 나가는 행동은 그만큼 인성이 연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인성이 연마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단체생활을 해내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된다. 설령 생활을 하더라도

더 간사하고 교활한 행동만을 일삼아 부정과 불의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직장에 물의를 일으켜 나오게 된다. 이를 볼 때 참된 성(誠)을 위해서는 그 인성(人性)의 연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상제께 김 갑철이 항상 응석하여 고집을 부리나 상제께서 잘 달래여 웃으실 뿐이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니 그는 더욱 심하여 고치지 않는 도다. 형렬이 참지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 (교법 1장 11절)

그 인성이 연마되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언행(言行)에서 드러나며 이것은 자신의 몸에 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인성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설령 타인의 잘못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잘 말하여 덕(德)을 베풀게 되면 그 덕이 밀려서 자신에게 이르러 큰 복을 이루게 된다. 이로써 참된 성(誠)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덕은 상대를 잘 되게끔 해주는 대덕(大德)이며 죽어가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생덕(生德)이라고 하겠다.

자신의 인성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반성의 자세이다. 그 심기(心氣)를 닦고 연마하는 과정이 곧 수행(修行)이고 수도(修道)이며 이 말 속에는 끝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타인의 장점을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의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도(修道)란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타인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성(誠)의 실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자세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무신년 여름에 문 공신이 동곡에 와서 상제께 배알하니라. 그 자리에서 상제께서 그를 보고 「네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고 꾸짖고 타이르셨도다. (행록 4장 37절)

김 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 중구(金重

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 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피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 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해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던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셔도다. (교법 2장 28절)

윗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허물을 뉘우치고 나쁜 습성을 고치는 것은 성(誠)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대해 나간다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는 결국 원만하고 참된 결실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 또한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도 불다가 그치나니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 동정에 때가 있나니 견힐 때에는 흔적도 없이 견히나니라」(교법 1장 28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능욕을 당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피 뉘우치면 이유없는 독기는 본처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끝없는 정성과 자기 반성은 곧 성(誠)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성(誠)의 내용은 주로 대순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신조(信條)의 한 항목으로 다루어 진 것이다.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사강령과 함께 삼요체(三要諦)에 해당하는 성(誠)의 의미는 수도인으로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자세에 해당된다. 그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순일무위(純一無僞)한 것, 미유부동(未有不動)한 것, 소원성취(所願成就) 등으로 고찰해보았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먼저 언행(言行)의 일치 그리고 사심없는 노력 나아가 무한한 정성

과 자기반성을 들었다. 이 외에도 성(誠)의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수도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이상에서 거의 다루었다고 생각된다.

성(誠)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을 통해 보다 더 그 가치가 드러난다 할 수 있다. 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위가 없이는 성(誠)의 참된 의미를 자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誠)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 만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만큼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며 이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노력해 나감으로써 성(誠)의 참된 의미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誠)의 의미는 어떤 사심(邪心)도 없는 순일무위한 진실이며, 성(誠)의 표현은 언제나 언행의 일치와 같이 무한한 정성(精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 성(誠)과 진실(眞實) 그리고 정성(精誠)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수도(修道)의 요체(要諦)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